

건설업 고용 현황과 취업자 전망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jhchung@keis.or.kr)

- I. 들어가며
- II. 건설업 취업자 특성 변화
- III. 건설업 고용에 미치는 요인과 취업자 전망
- IV. 건설업 고용에 대한 시사점

2

■ 국문요약 ■

건설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2031년까지 건설업 취업자 수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건설업 내부에서 볼 때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종합 건설업 취업자는 2017년까지 증가하다 2018년 이후 지금까지 감소하고 있지만 전문직별 건설업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까지 종합 건설업에서 취업자 증가는 일용근로자 비중을 증가시켰지만 2017년 이후 전문직별 건설업 취업자 증가와 종합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오히려 상용근로자 비중과 고학력 취업자 비중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건설업에서도 본격화된 고령화 현상과 향후 저탄소 전환이라는 요인을 고려하면 건설업 취업자는 2021년에서 2031년 기간 동안 40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에도 고학력 취업자 비중 증가와 저에너지 건축물 수요 증가는 건설인력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주제어 : 건설업 고용, 중장기 취업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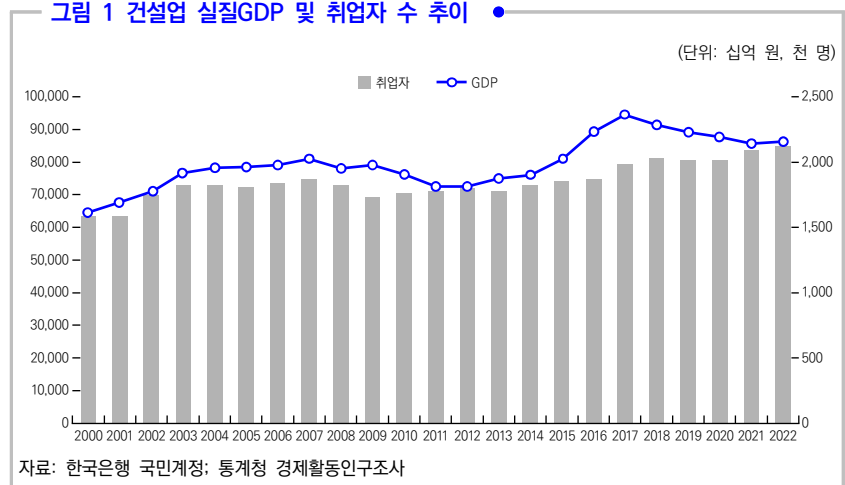
I. 들어가며

건설업에서 실질 GDP는 2017년을 정점으로 2018년부터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증가추세에 있었다. 2000년에 1,582천 명이었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2년 2,123천 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었던 2020년은 전년에 비해 취업자 수가 4천 명이 감소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던 2021년에는 74천 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건설업의 고용은 경기를 반영하는 실질GDP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건설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2031년까지 건설업 취업자 수에 대한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노동공급측 요인과 노동수요측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노동공급측 요인은 건설업 노동공급 대상이 되는 계층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건설업 취업자 특성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건설업 취업자 특성 분석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으로 구성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노동수요측 요인은 건설업 업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요인을 검토할 것이다.

이 두 요인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중장기 취업자 수 전망을 건설업 중분류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 건설업 고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이 글이 건설업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림 1 건설업 실질GDP 및 취업자 수 추이



II. 건설업 취업자 특성 변화

1. 건설업 중분류별 취업자 수 추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종합건설업이 2013년 592천 명에서 2017년 802천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21년에는 675천 명까지 줄었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이와 달리 2013년 1,188천 명에서 2016년 1,113천 명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에는 1,416천 명으로 늘었다.

이런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보면, 2014년 이후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 취업자 수는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종합건설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했지만, 전문직별 공사업 취업자수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7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종합건설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전문직별 공사업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건설업의 중분류 수준에서 취업자 수 변화의 차이는 산업별로 취업자의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업을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으로 나누어 취업자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림 2 건설업 중분류별 취업자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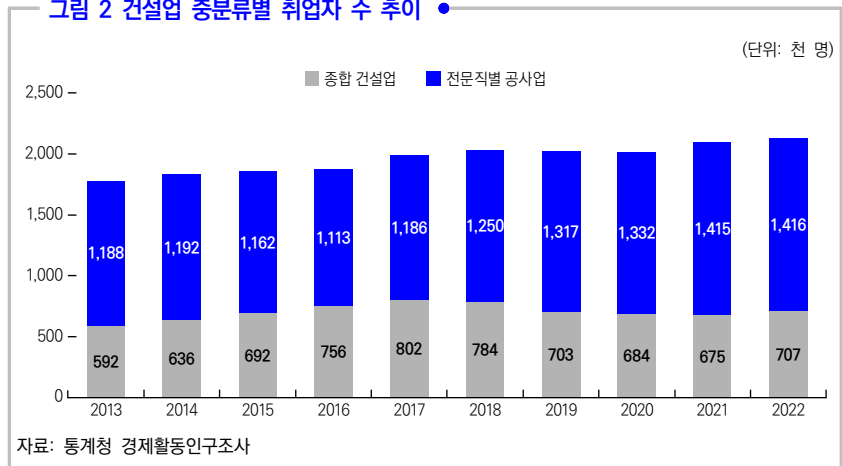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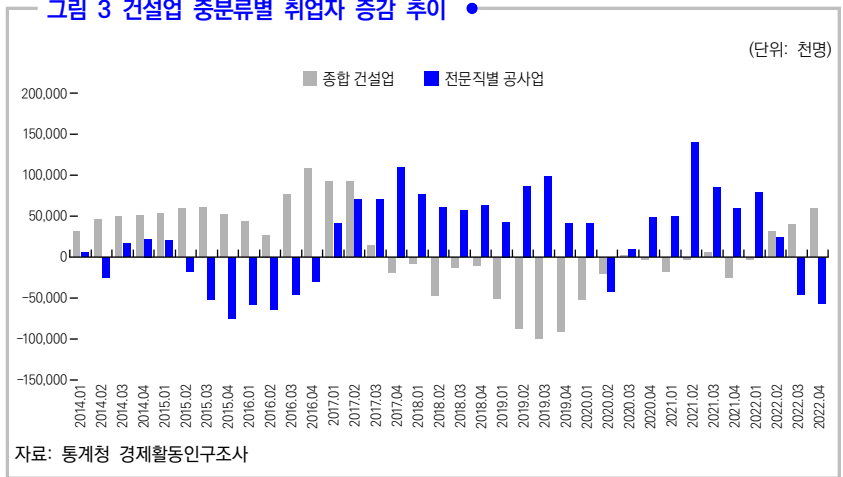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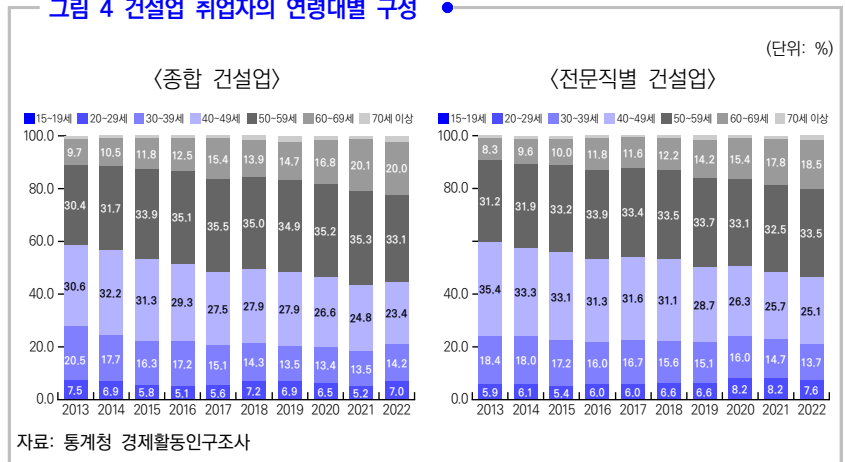
그림 3 건설업 중분류별 취업자 증감 추이



2. 건설업 취업자의 연령대별 구성

건설업은 최근에 올수록 50대 이상이 증가하는 고령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는 50대 이상이 42% 미만을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종합 건설업에서 50대 이상이 50% 이상이 된 시점은 2017년 이후였으며, 전문직별 건설업에서는 그 보다 늦은 2021년 이었다. 상대적으로 전문직별 건설업에 더 젊은 취업자가 많지만, 40대 이후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건설업 취업자의 연령대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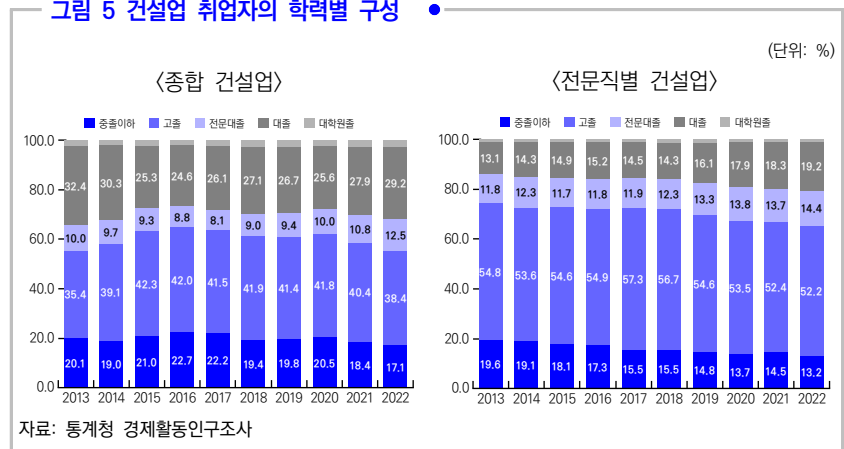
3. 건설업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

건설업 취업자 학력 구성을 보면, 산업별로 양상은 다르지만 고령화 현상에도 점차 고학력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종합 건설업은 2013년에 대졸자가 32.4%로 35.4%였던 고졸자 비중보다 3%p만 적었다. 그러나 2016년까지 대졸자 비중이 24.6%로 감소했고 고졸자 비중은 42%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다시 대졸자 비중이 증가하고 고졸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대졸자 비중이 29.2%로 늘었으며 고졸자 비중은 38.4%로 줄었다.

전문직별 건설업은 2013년에 고졸은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졸 이하가 19.6%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아 고학력 비중이 적은 산업이었다. 이후 고졸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 57.3%까지 증가했지만 중졸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졸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다. 2022년에 여전히 고졸자 비중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학력은 대졸자로 19.2%를 차지했고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학력은 전문대졸로 14.4%로 증가했다.

그림 5 건설업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



4. 건설업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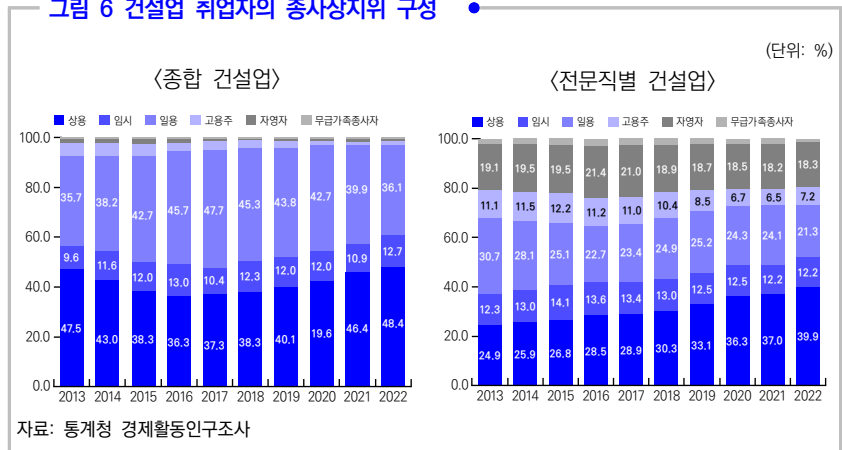
건설업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은 종합 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점차 상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종합 건설업은 2013년에 상용근로자 비중이 47.5%로 가장 높았고 일용근

로자 비중이 35.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7년에 이르러 상용근로자 비중은 37.3%로 감소했으며 일용근로자가 47.7%로 증가했다. 앞서 종합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17년까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종합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일용근로자 비중은 감소하고 상용근로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2022년 종합 건설업 상용근로자 비중은 48.4%로 증가했으며, 일용근로자 비중은 36.1%로 감소하여 2013년과 비슷한 구성으로 돌아갔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2013년에 일용근로자 비중이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상용근로자로 24.9%를 차지했다. 전문직별 공사업 취업자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2017년 이후지만 종사상지위의 변화는 그 이전부터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일용근로자 비중은 감소하였다. 2022년에는 결국 상용근로자 비중이 3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용근로자 비중은 21.3%로 감소했다.

그림 6 건설업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구성



5. 건설업 취업자의 특성 변화 요약

건설업에서 종합 건설업은 2017년까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졸자 비중과 중졸 이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대졸자 비중은 감소했다. 2018년 이후 종합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역으로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고졸자와 중졸 이하의 비중은 다시 감소하고 대졸자 비중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2013년과 비슷한 학력별 구성으로 회귀하였다.

III. 건설업 고용에 미치는 요인과 취업자 전망

전문직별 건설업은 2017년부터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그에 따라 학력 구성도 대졸자와 전문대 졸업자 비중이 점차 증가했으며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던 고졸자 비중도 202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일자리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숙련형성에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변화 중 하나는 건설업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종합 건설업의 고령화가 더 빠르지만 전문직별 고령화도 곧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는 결국 인력공급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주요인으로 고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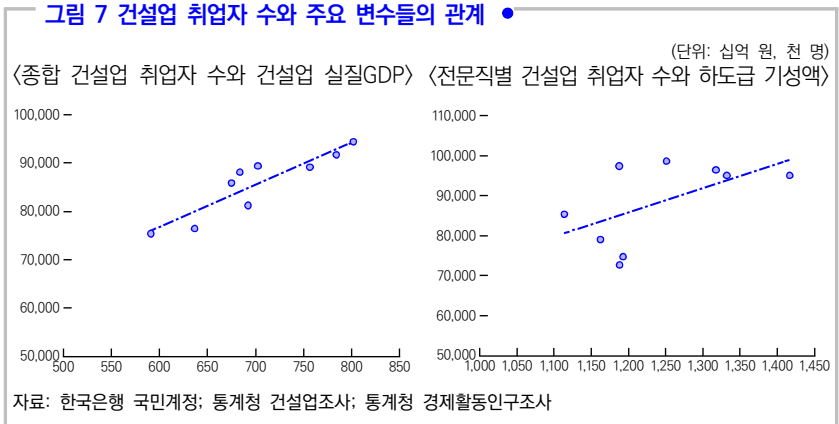
1. 건설업 취업자 수와 건설업 주요 변수 관계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건설공정이 지형과 지역특성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려워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여지가 크지 않다. 그리고 다양한 공정에서 숙련인력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적 특성도 건설 로봇 개발 및 도입을 어렵게 한다. 이런 건설업 특성으로 건설업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국 공사 규모가 될 수 밖에 없다.

종합 건설업 취업자 수는 다양한 관련 변수들에서 건설업 실질GDP와 밀접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실질GDP가 증가하면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취업자 수도 감소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2017년까지 건설업 실질GDP가 증가하다 2018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종합 건설업 취업자도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전문직별 건설업은 도급계약을 통해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분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전문직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여러 변수들 중 하도급 기성액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하도급 기성액이 명목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질 건설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비도 주요 변수로 고려된다. 동일 건설수주액이라면 건설공사비지수가 증가할수록 고용이 감소한다.

그림 7 건설업 취업자 수와 주요 변수들의 관계



2. 건설업 취업자 수 전망

건설업 취업자 수 전망은 공사 규모를 반영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향후 건설업에 영향을 미칠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주요 변수로 건설업 실질GDP, 실질매출액, 건설수주액, 기성액,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활용한다. 향후 10년 동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정성적 요인은 저탄소 전환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2020년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작되었고 2023년에는 연면적 500m²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주택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인증제는 건설업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지만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축과정이 일반 건축물보다 더 많은 비용과 관련장비를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 건설물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정량 변수들과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건설업 취업자를 중분류 수준에서 전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망기간 상반기인 2021년에서 2026년까지 종합 건설업 취업자는 1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같은 기간 4천 명이 감소하여 종합 건설업에 비해 취업자수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건설업 취업자 수 전망

(단위: 천 명, %)

연도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감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2021	2026	2031	2021~2026	2026~2031	2021~2031	2021~2026	2026~2031	2021~2031
건설업	2,090	2,075	2,050	-16	-25	-40	-0.1	-0.2	-0.2
종합 건설업	675	663	645	-12	-18	-30	-0.3	-0.6	-0.5
전문직별 공사업	1,415	1,411	1,405	-4	-7	-11	-0.1	-0.1	-0.1

IV. 건설업 고용에 대한 시사점

전망기간 하반기인 2026년에서 2031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공급제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건설업은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 취업자는 18천 명이 감소하고 전문직별 공사업은 7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1년에서 2031년 기간 동안 건설업 취업자는 40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종합 건설업이 30천 명 그리고 전문직별 공사업은 11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2년 현재까지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지만 추세로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내부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직별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고용이 확대되었지만 종합 건설업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아 건설업도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저탄소 전환이라는 과제도 건설공사비를 상승시켜 실질 건축 물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전망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건설업 취업자 구성에서 상용근로자 증가와 고학력 비중의 증가는 건설업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저탄소 전환으로 인한 저에너지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파고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 인력의 전문성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취업자 수는 감소하지만 전문성 강화로 건설업 일자리의 질을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통계청, 건설업조사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21-2031
4. 한국은행, 국민계정